

부산지역 춤 인문학 강좌의 현황 연구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노영재*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인문학 대중화의 사회적 배경	참고문헌
III. 부산의 인문학 대중화와 춤 인문학 현황	Abstract

I. 서론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과 가치에 대해 사유하고 인간 삶과 현상을 둘러싼 비판을 본령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정신을 고양하고 삶을 성찰하며 그 속에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간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기초학문의 영역에서 문학, 역사, 철학의 범주로 규정되어왔지만, 21세기 인문학은 이러한 고유의 주제뿐 아니라 예술과 타 학문 분야들이 연계한 융합형 인문학 콘텐츠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문학이 더는 자연과학의 대척점도 사회 현상과 동떨어진 학문도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인문학의 정의를 확장해볼 때 인문학은 ‘지친 나를 위로하는 힐링’의 관점에서 교양과 개인 성장에 집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지친 영혼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즉 권력 관계, 자본(주의), 계급 등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나를 지치게 만든 본질의 비판학’으로 넓혀볼 수도 있다(유범상, 이현숙, 2015, p. 168).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현재는 과학기술로 피폐된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인문학’ 혹은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인문학’과 같이 시대를 통찰하고 고발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다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박병준, 2017, p. 16).

융합 혹은 통섭 형태의 콘텐츠가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모임까지 다양한 주체가 주도하는 ‘인문학의 대중화’라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미술, 영화, 음악 등은 인지도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적 및 미디어 등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인문학 강좌에서 인기 있는 주제로 자리 잡게 된다. 예술이 인문학 콘텐츠로 변모하고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예술을 통해 인문학의 외연이 넓어지고 환영받는 과정에서 춤 관련 주제는 희박하거나 일회성으로 그쳐 지속적인 강의 콘텐츠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 눈길이었다.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 balletyj@gmail.com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정부 기관의 인문학 활성화 정책은 이미 전국으로 확산·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 도서관, 대학 주도의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많은 예술 인문학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문화 인프라가 뚜렷하게 양극화되어있는 국내 현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문학 강좌의 양과 규모를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지역 예술대학이 붕괴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이라는 극단적 미래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지역 내 인문학 열풍과 예술은 어떤 형태로 관계 맺고 활용되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은 시의성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물론 예술 인문학은 인기 있는 방송 매체, 온라인 콘텐츠, 출판물 등을 통해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중의 접근성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인문학 진흥 정책으로 양산된 각종 시민 인문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 및 사회 구조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역 현황 연구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인문학’, ‘학교 밖 인문학’을 표방하는 인문학 대중화에 주목하여 부산지역 인문학 강좌의 춤 활용 현황을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둔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춤을 주제로 한 인문학 콘텐츠의 필요성을 도출하여 향후 지역성을 연계한 춤 인문학 콘텐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 연구는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무용과 인문학 관련 연구는 인문학의 대표 학문인 역사학 관점에서 무용사 연구의 방향을 논의한 연구(이병옥, 2003)와 무용교육의 영역에서 인문학의 중요성과 의미 있는 실천 과제를 제시한 연구(김재은, 서예원, 2011) 정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예술과 인문학의 만남을 장려하는 인문학 대중화의 현 추세에서 이와 연관된 선행연구는 서울지역 무용 분야 인문학 강좌를 통해 인문학적 접근을 고찰한 박현정(2020)의 연구가 유일하다. 인문학에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 현상에 주목하며 무용 현장의 인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박현정의 연구는 서울이라는 지역성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고, 서울에서 개설된 인문학 강좌들을 인문학과 무용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며 그 성격과 이점을 논의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정부 주도 인문학 대중화 정책의 전국적 확산에 주목하여,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된 바 없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과 연계한 인문학 대중화의 분포와 양상을 폭넓게 살펴보고, 지역 인문학 강좌에서 구체적으로 춤이 어떻게 기획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문학 대중화와 관련한 연구논문들을 참조하고, 부산의 사례 분석은 선행연구가 부재한 관계로 공공기관과 사업 주체가 발행한 보고서, 보도자료, 홍보 자료 및 온라인상의 관련 자료 등을 수집, 활용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는 부산지역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강좌에 한정된다. 인문학 강좌는 민간 연구공간이나 소규모 동호회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많은 강의가 단기간 혹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거나 주체가 모호한 예도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지속해서 기획된 인문학 프로그램 속 예술 인문학 강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개별 강좌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향후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일차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 내용은 본론 첫 장에서는 인문학 대중화 정책 속 예술 인문학 콘텐츠의 확산 배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먼저 인문학과 예술의 정의 및 범위의 변화를 알아본다. 그런 다음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시행 배경을 다룬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부산의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설된 예술

인문학 강좌의 분포와 춤 활용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특징 분석을 통해 춤 인문학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문학 대중화의 사회적 배경

1. 인문학과 예술의 정의와 범위

인문학 강의에서 예술 콘텐츠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본 절에서는 정의와 범위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예술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원론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본다. 예를 들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인문학인가? 인문학 속에 예술이 포함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물음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인문학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백과사전에는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로 설명된다. 이는 ‘인문(人文)’ 즉, ‘인류의 문화’ 혹은 ‘인물과 문물’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포함하며 학문을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예술은 일차적으로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혹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한정되지만, 인문학의 정의에서 ‘인문’은 예술을 포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 인문학과 예술의 의미나 관계를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학계의 입장 또한 오늘날에도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인문 혹은 인문학이라는 한자어는 우리 고유의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번역어로, 그 정의를 서양 학문의 유래와 범위에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가 말한 후마니타스는 ‘인간다움, 혹은 박애’의 의미로, 지식 교육이 아닌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 교양을 의미한다. 이는 덕을 갖춘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삶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자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즉 인본주의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문법, 수사학, 기하학, 음악, 기마술 등 학문과 기예를 포함한 폭넓은 교양으로서의 후마니타스는 15세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이를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 즉 인문학 연구로 부르면서 그 내용을 문법, 수사학, 시, 역사학, 도덕철학으로 한정했다(황수영, 2010, p. 189).

17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태동하고 19세기에 이르러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양극단에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즉,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로, 객관적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지식 문화의 한 축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 서구의 학제는 인간다움을 규명하는 고대 인문학의 전통을 수렴하면서도 일반 교양 과목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연구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인간을 다룬다는 영역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이러한 학제적 구분에서는 예술이 인문학 영역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21세기 인문학은 ‘인문 연구’라는 포괄적 정의를 기반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현재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문학의 범위는 정말 광범위하다. 인문학 연구지원기관인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에 의하면 인문학은 현대 및 고전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 법학, 철학, 고고학, 비교 종교학, 윤리, 예술사 및 비평 이론과 함께 인문학적 내용이 있고 인문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과학의 측면을 포함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산, 전통, 역사와 인간의 환경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그리고 국가의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인문학적 관련성 연구까지 매우 폭넓게 인문학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NEH Homepage).

국내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국내 대학 학제의 흐름에서 인문학은 오랫동안 문학, 역사, 철학 등 특정 분과학문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이해되어왔고 이는 고등교육에서 기초를 이루는 근간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인문학의 위기’라는 절박한 주장은 대학 학문의 위기, 즉 좁은 의미의 인문학 분과학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서 예술은 배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 경제와 평가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그 위기의 실상은 소위 ‘문사철’만의 위기가 아닌 예술을 포함한 인문 분야 전반에 엄습한 위기였으며, 여기에 대응하는 인문학 지원과 활성화 정책은 예술을 포함한 폭넓은 ‘인문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아간다.

2016년 정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법률에 따르면,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의미하며,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 체험, 표현, 이해, 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여기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까지 인문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거의 전 학문이 인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현재 미국의 제도와도 흡사하다.

인문학 연구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를 보면 대분류를 기초인문학(문학, 역사, 철학)과 예술체육으로 나누고 있지만(음악, 미술, 영화, 무용, 체육 등), 연구재단의 인문학 연구지원사업은 예술체육과 융복합을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1).

〈표 1〉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중분류의 예
인문학	문학, 언어, 역사, 철학, 종교 등
사회과학	법, 정치, 경제, 경영, 사회, 지역, 인류, 교육, 지리, 심리 등
자연과학	수학, 통계, 물리, 생물, 화학, 대기, 해양 등
공학	기계, 전기, 건축, 자동차, 항공, 우주, 환경, 컴퓨터 등
의약학	의학, 약학 등
농수해양학	농업, 조경, 축산, 수산, 식품 등
예술체육학	음악, 미술, 디자인, 의상, 사진, 미용, 연극, 영화, 체육, 무용
복합학	과학기술, 문헌정보, 여성, 인지, 뇌, 감성 과학 등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학문분류 또한 이와 유사하다. 2018년에는 기초인문학과 예술이 ‘인간’이라는 카테고리에 함께 있지만, 2023년 개정된 분류체계는 ‘인문사회학’의 분야 속에서 기초인문학과 문화예술체육학을 분리하고, 나아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주제 속에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예기반을 둔 자연과학 및 융복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표 2>.

<표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분야		대분류
인문사회과학 (2018년 개정)	인간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학, 문화/예술/체육
	사회	법,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인류/복지/여성, 생활, 지리/지역/관광, 심리,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인간과학과 기술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인문사회과학 (2023년 개정)	인문사회학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예술체육학
	인간과학과 기술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학계의 인문학 위기에서 시작된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은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기본 이념을 지니고 있으나, 인문의 정의와 인문학적 방법론의 포괄적인 적용을 통해 인문학의 다양화, 심층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 또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 속에서 예술은 인문학의 한 분야로 그리고 인문정신문화의 산물로 연구 주체이자 대상으로 존재하고 타 학문 분야와 상생해야 함이 분명하다.

2.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는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 열풍’을 동시에 접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대학 내 인문학 관련 학과의 폐과로 인해 인문학이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학교 밖에서는 TV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대중 인문학 강좌가 성행하고 서점가에서는 교양 인문학 도서의 강세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열풍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인문학 대중화 현상은 대학의 ‘인문학 위기 선언’에서 촉발되었다.¹⁾ 2006년 인문학 연구자들의 선언문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밖에도 시민 사회단체, 대학, 기업,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본화되어 소비됨으로써 인문학은 시민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인문학 확산 정책이 있어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기초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 연구 지원과

1) 인문학 위기 담론은 인문학 존폐의 갈림길에서 위기의식을 감지한 학계에서 먼저 출발하였으며, 1996년 국공립 인문대 학장들의 ‘인문학 제주 선언’을 시작으로 국공립대 인문대학협의회 ‘2001 인문학 선언’,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의 ‘2006년 인문학 선언’ 등 일련의 인문학 위기 선언으로 표명되었다(신동순, 2015, p. 274).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연구군으로 인문한국(HK) 및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과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육성하여 인문학의 다양화와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문학 대중화 성과 확산 사업을 별도로 두어 석학인문강좌, 시민인문강좌, 청년인문강좌 등을 시행하였고 인문도시지원사업, 한중인문학포럼, 세계인문학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2016년부터 3년간 시행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CORE)은 정부 최초의 대학 인문 분야 재정 지원사업으로 “인문학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란 비전으로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육성을 목표로 시행되었다(교육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2006년 시작된 ‘인문주간’은 매년 한 주간 열리는 전국 인문학 축제로 현재 18회를 맞이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위에 열거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들에 참여한 대학, 연구소, 지역 인문도시사업단들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이다.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인문주간의 내용은 강의와 토론회를 비롯하여 인문자산을 활용한 각종 공연, 전시, 문화 체험 행사들로 구성되어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인문학을 접하며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또 다른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의해서도 진행된다. 문체부는 전국 공공, 대학도서관과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에게 인문학 강연, 탐방,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삶을 바꾸는 삶, 지혜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신중년의 주체적인 인문활동을 지원하는 인문심화프로그램인 <도서관 지혜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 대중화의 원인은 대학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 정책과 대학의 자구 노력에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중장년의 의식 전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오재호 외, 2016, pp. 13-14). <도서관 지혜학교>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생애주기가 적용되는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활발한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0여 년의 정책적 지원과 연구 활동으로 이어진 인문학 대중화는 정부 부처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인문학 연구 모임과 강연, 그리고 기업, 지역 사회, 문화센터 등이 주관하는 강좌 등을 통해 정착 단계를 넘어서 시민의 삶 속에서 익숙한 활동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에서 나아가 예술과 사회까지 아우르는 통섭형의 인문정신을 탐구하고 체험하는 생활 속 인문학, 평생 학습으로서의 인문학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III. 부산의 인문학 대중화와 춤 인문학 현황

인문학 대중화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산에서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 그리고 춤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무용 현장에서의 인문학적 접근을 연구한 박현정(2020)은 무용 분야가 주관하는 서울지역의 춤 인문학 강좌의 성격을 고찰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국립현대무용단의 인문학 강좌 시리즈, 한국춤문화자료원 기획의 <인문학적 춤 읽기>,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인

문학, 몸으로 읽다》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특징은 그 주관 혹은 기획이 춤계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의 구성 또한 춤 기반으로 몇 회기에 걸쳐 이어지며 다양성과 심화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인문학 정책 확산에 주목하여 부산지역 인문학 강좌와 예술의 활용 현황을 살펴볼 때, 우선 춤 관련 기관 혹은 단체가 주관하는 인문학 강의나 춤을 대주제로 구성한 인문학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예술과 인문학을 접목한 지역 인문학 강좌 속에서 춤 인문학 강좌의 분포와 현황을 논의함으로써 춤과 인문학의 접점을 고민해보기로 한다.

1.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부산지역 인문학 강좌의 주요 확산 통로는 도서관, 대학, 공연장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도서관은 공공 및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문체부가 지원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문체부가 정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공모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다. 2010년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은 책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문체부는 <길 위의 인문학>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과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인문학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문체부 지원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공공도서관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대학도서관과 지역 내 작은 도서관으로 확대되어 인문 분야 대표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장소 체험과 활동의 의미에서 시작된 ‘길 위의’라는 수식어는 이제 물리적 체험을 넘어 강연과 탐방을 통한 인문학의 일상화, 생활화를 의미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주로 자유기획형 사업에 선정된 지역구 공공도서관들이 주제, 대상을 자유롭게 설정, 기획하여 10주 분량으로 운영해오고 있다.²⁾ 2023년 공모 요강에 따르면, 자유기획형의 경우 “문/사/철(종교), 문화·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그 밖에 융·복합 주제 등 생활과 밀접한 융합주제로 자유롭게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흥미로운 것은 주제가 인문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전 학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 주제 분류 설명에서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의 경우 “인문학과 연계하여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자 생활과학, 자연과학, 천문·지리·생명과학·공학 분야를 다루는 영역”이라 정의함으로써 인문학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2) 2023년 기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유형은 주제, 대상, 내용에 따라 자유기획형(기본/중장기/보급), 참여형, 사회화산형, 거점연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기간 또한 5회에서 25회까지 다양하다.

〈표 3〉 부산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속 예술 강의들

연도	장소	강의명 (주제)
2023년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그림책, 삶에 이르는 지도
	기장도서관	시간의 궤: 인문학의 어제, 오늘, 내일 (건축, 미술, 미술관)
	사상도서관	예술 한 스펀으로 만나는 AI 세상, 인간을 다시 묻다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메타버스 시대 창의력 글쓰기, 꿈을 그리는 진로 독서 (영화, 애니메이션)
2022년	남구도서관	인문학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와 포스트 휴먼 (영화 미술, 미디어아트)
	수영구도서관	치유의 바다, 일상의 바다, 예술의 바다 - 에게해에서 동해까지 (김환기, 이중섭 미술)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음악의 숲을 지나 인문학을 만나다
	맨발동무도서관	취향의 발견과 기쁨, 사람과 마을을 잇다! (몸말랑 마음말랑 취향공동체 양달리 발레)
2021년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찰나가 역사가 되다_나의 움직이는 e-그림책
	수영구도서관	팬데믹 이후 다시 발견한 일상의 키워드와 부산 (나전철기와 해양문화)
	남구도서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축과 주거
	안락누리도서관	언택트 유럽 동시대 미술관 여행
	연제도서관	해양환경의 인문학적 탐방 “치유의 바다를 걷다” (명화에 담긴 바다, 이중섭이 그린 부산, 인문학적 상상력)
2020년	구포도서관	영화, 전염병과 도시를 스크린하다
	금정도서관	극예술(오페라, 뮤지컬, 연극, 영화)에서 희망을 그리다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청소년, 꿈을 찾아가는 공감 인문학 (미술, 영화, 그림책)
	다대도서관	부산을 노래하다 (대중음악)
	안락누리도서관	혼돈의 시대, 희망의 인문학을 만나다 (시대의 사진)
	연제도서관	부산의 숨은 문화재 찾기 (부산의 전통문화와 춤)
	정관도서관	기장 오뎃세이, 사람의 무늬를 엮다 (명화에 담긴 바다)

폭넓은 영역의 주제로 시행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들은 각각의 대주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강의들로 구성된 소주제가 포함되었다(표 3). 장르별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면 미술, 음악, 영화, 건축, 사진, 춤 등 여러 예술 분야를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미술과 영화 강의를 가장 두드러진다. 미술은 그림책, 미술사, 세계 미술관 기행, 문화 일반, 부산의 지역성 등과 다채롭게 연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도 청소년과 성인으로 차별화하여 특화된 강의로 시행되었다. 영화도 다수의 강의를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접근성이 뛰어난 대중적인 매체인 만큼 강의에서의 활용도가 높고, ‘영화의 도시’로 인식되는 부산의 문화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지역 친화적 주제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장르는 음악인데, 음악은 미술이나 영화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2022년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의 ‘음악의 숲을 지나 인문학을 만나다’의 경우 단독 대주제로 설정되어 10주간 비중 있게 진행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20년 다대도서관에서 있었던 ‘부산을 노래하다’의 경우는 부산학(釜山學)과 연계하여 부산의 대중음악을 강의와 장소 탐방 형식으로 3주간 진행

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춤을 주제로 한 강의는 지난 4년간 2개의 강의에 그쳤다. 2022년 맨발동무도서관의 ‘취향의 발견과 기쁨, 사람과 마을을 잇다!’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발견과 성장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도구로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 이웃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지점이 있다. 먼저 부산 지역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주로 구립 혹은 시립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졌는데, 이 맨발동무도서관은 유일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부산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과 어린이책시민연대 서부지회가 합심해 설립한 ‘마을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마을 도서관의 정체성을 살려 자유기획형이 아닌 마을 공동체 중심의 특화기획(유형특화)³⁾으로 총 25주간 시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취향의 종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발레, 음악, 걷기, 만다라워크숍, 글쓰기 등이 선정되었고, 그중 발레 강의는 딱딱한 몸을 이완하며 마음과의 연결에 관한 체험과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문학적 사유와 실제 몸을 움직여 참여하는 체험, 탐방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강연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2022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결과보고서, p. 690).

또 다른 춤 인문학 사례로는 2020년 연제도서관의 ‘부산의 숨은 문화재 찾기’ 속 소주제로 부산 전통춤에 관한 강의를 있었다. 부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총 9회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역사와 문화 일반에 관한 강의 형식과 갤러리, 박물관, 민속예술관, 국립국악원 등 전통문화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탐방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춤은 문화 일반의 영역에서 강의 형식으로만 한 차례 진행되었는데, ‘전통무용에 대한 이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로 부산 전통춤의 개괄적인 종류와 특성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2. 학교·지방자치단체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처럼 도서관이 기획하는 인문학 강의와 함께 지역 대학이나 교육청, 구청 등 지자체의 협력 혹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인문학 프로그램들 속에서도 예술 콘텐츠의 활용이 이루어진다.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인문학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왔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부터 동아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주최해온 <열린 인문학 콘서트>는 부산지역 인문학 활성화와 부산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강연 및 예술 공연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사로, 2016년부터는 교육부 CORE 사업에 포함되어 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이다. 다음의 <표 4>는 열린 인문학 콘서트의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진행되지 못하였기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강좌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3)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자유기획(기본형, 보급형), 특화기획(대상, 주제, 유형)으로 유형을 나누며, 그중 유형특화는 마을 공동체, 지역 아카이빙, 결과물 제작(출판) 등을 중심으로 기획하여 25회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4〉 동아대학교 〈열린 인문학 콘서트〉

일시 / 회차	강의명	분야	형식
2023년 / 13회	생각으로 나를 지키기	심리	강연
	재즈의 리듬에 몸을 맡겨볼까	음악	공연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가 여기에 인간 너머의 비/인간학 젠더어펙트 연구	인문학 일반	강연
2022년 / 12회	어제의 사랑과 내일의 사랑	철학	강연
	우리의 멋, 본색	무용	공연
	독서, 삶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	문학	강연
2019년 / 11회 가을 편	정의와 어머니, 카뮈의 세계	문학	강연
	만수무강과 피안으로의 축원	무용	공연
	어둠 속 관세음	고고미술사	강연
2019년 / 10회 봄 편	세종 시대와 인재 등용	역사	강연
	첼로로 듣는 봄의 향기	음악	공연
	인골로 bone 고고학	고고미술사	강연
2018년 / 9회 가을 편	인문학적 사유와 과제	철학	강연
	상상! 그 이상	융복합 (음악, 무용, 미디어아트)	공연/전시
	상상력의 DNA - 동양신화	문학	강연
	구체제 해체기 새로운 문화적 동향	역사	강연
2018년 / 8회 봄 편	반복과 변화: 시와 예술, 삶	문학	강연
	부산가야금연주단	음악	공연
	깨달음의 미학: 잔치 속으로	식문화	강연

콘서트 형식을 표방하는 이 인문학 행사는 두세 개의 강의와 하나의 공연이 결합된 형태로 회차마다 무용, 음악, 융복합 공연 등이 포함되었다. 춤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이수자의 공연(2022년)과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보존회, 통영삼현육각·진춤보존회의 공연(2019년)이 있었으며, 그 외 국악 혹은 서양 클래식 연주와 춤, 음악, 미디어가 결합한 융복합 공연이 각각 행해졌다. 본 인문학 콘서트의 경우, “인문학의 진흥과 사회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인문학계의 노력이나 CORE 사업의 취지를 담고 있으나 강연과 공연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행사의 보도자료들을 살펴보면 〈열린 인문학 콘서트〉라는 제목에서 짐작하듯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준 높은’ ‘고품격’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대중적 행사임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23; 최현영, 2023). 또한, 강연자들의 약력은 분야와 업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공연에 대한 소개는 ‘색다른 문화향유의 기회’와 같이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짧은 기사에선 공연 소개가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김형일, 2023; 이동국, 2023). 따라서 각 회차의 인문주제와 공연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공연을 어떤 막간의 ‘색다른’ 혹은 ‘기분 전환용’처럼 삽입한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물론 강의형 토크와는 다른 형식의 시연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융합형 인문학 콘서트는 대중 친화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 콘서트 속 공연이 시·청각적 경험을 넘어 인문학적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쉬어가는’ 시간이나 ‘끼워 넣기’식으로 인식된다면 자연스레 강연과 공연의 위계가 생기며 행사의 구색 맞추어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강의 콘텐츠와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느낄 수 있는 융합형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은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예도 있다. 부산대학교는 2019년부터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 중 지역 기여사업으로 금정구, 해운대구, 동구, 수영구와 연계하여 ‘시민인문아카데미’, ‘인문학이 있는 저녁’, ‘인문학캠퍼스’, ‘인문학 살롱’ 등 다양한 인문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제는 기초인문학부터 예술, 의학, 경영까지 광범위하나 예술의 경우 음악, 미술, 영화만이 현재까지 강연으로 선보였다.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더욱 확대되어 2022년 개관한 국회부산도서관과 함께 하는 ‘퇴근길 인문학’을 새로 개설하기도 하였다. 직장인 등 낮 시간대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저녁에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이 강좌는 현재 경영(1기)과 식문화(2기)를 대주제로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예술의 활용 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 인문학(HK) 연구기관인 인문학 연구소는 2012년부터 노숙자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문학, 철학, 예술사, 글쓰기 강좌를 제공하는 ‘희망의 인문학’⁴⁾ 사업으로도 인문학 확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춤과 관련한 연구와 강의는 찾기 힘들었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치유인문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강의는 항공학, 물리학, 중문학, 불문학, 신경정신과학, 건축학, 인문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지식을 통해 시민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춤과 관련하여서는 2021년 2학기 인문치료학적 관점에서 ‘춤, 치유의 몸짓으로 날다’라는 강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강의는 소매틱을 기반으로 예술과 의학의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통합예술치료학 과정과 연계한 것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연결을 통한 춤의 치유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치유인문학 과정은 인문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공학, 자연과학 등 많은 대학 내 전공 분야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마음치유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기에 현재까지 춤을 비롯한 다수의 전공이 회기별로 돌아가며 한두 차례 정도의 강의로 소개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부산시 교육청도 지역 공공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표 5). 2023년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예술의 인문학’은 무용, 그림, 영화, 음악 등 예술 분야 4개의 주제를 인문학과 접목하여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진행된 ‘춤이 전하는 삶의 철학’은 현 부산시립무용단 단장을 초빙, 춤을 통해 동·서양의 철학을 배우는 시간으로 한 차례 강의를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의 책 읽기 문화 확산과 인문학 소양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가치를 확산하고 인문학 교육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하경민, 2023). 2023년의 경우, 예술을 주제로 한 강의는 음악과 미술이 주를 이루었다(표 5). 이외에도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에서는 ‘노래하는 인문학(2023)’, ‘음악

4) ‘희망의 인문학’이란 미국에서 대학 수준의 무료 인문학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Clemente Course)를 창설한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실천적 인문학 강좌를 말한다(전봉주, 2011, p. 30). 2013년 교육부는 인문학(HK)사업인 시민인문학강좌의 한 유형으로 ‘희망의 인문학’ 지원을 통해 노숙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군장병 등 인문학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무료로 사업을 제공하기로 공시하였다.

으로 인문학(2019, 2021), ‘영화로 보는 인문학(2019)’ 등을 단독 주제로 몇 회의 강좌가 구성된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나 춤을 주제로 한 강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표 5〉 2023년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의 예

행사명	일시	주제	주관
예술의 인문학	2023년 5월	춤이 전하는 삶의 철학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2023년 4월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는 예술 기행	연산도서관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2023년 5월	예술을 품은 인문학 (미술)	연산도서관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2023년 9, 10월	문학, 음악, 과학 분야	서동도서관
인문학 콘서트	2023년 12월	커피 인문학	부산학생문화예술회관

또한, 교육청은 2016년부터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진로 융합형 체험공간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에서 학교 교육, 일반 시민 대상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콘서트와 문화예술 심화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놀이마루 홈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강의와 공연을 선보이는 취지의 인문학 콘서트는 교육청 운영 사업인 만큼 진로 체험형 강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유명 작가, 배우, 영화감독 등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영화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되었고 무용 분야는 현재까지 부재하다. 다만, 놀이마루는 인문학 콘서트와 더불어 문화예술 심화특강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론과 실기를 결합한 장기 강좌가 포함되어있다. 현재까지 뮤지컬, K-Pop 댄스, 공연 기획 강좌 정도에서 춤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데, 주제의 이해를 위한 강의와 자유로운 토론이 함께 하는 점은 인문학 강의의 지향점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춤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하지만, 특강 기간 소통과 성찰을 바탕으로 작품 제작과정과 결과물까지 공유해본다는 점은 인문 프로그램들이 참고할만한 사례라 생각된다.

3. 공연장 인문학 아카데미

공연이 이루어지는 극장은 문화예술의 향유와 더불어 체험과 교육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는 공연장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문화회관의 문화예술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매년 4분기 혹은 상·하반기(회기당 10회 혹은 15회) 다양한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움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아카데미에는 강의 형식의 인문·교양 강좌와 무용, 음악 실기 강좌가 함께 개설되어있는데, 인문학 강좌는 예술 공연장의 특성을 살려 예술만을 주제로 한다. 2020년부터 개설된 인문학 강좌를 살펴보면, 주요 주제는 음악, 미술, 사진, 소설, 연극, 여행 등이며 무용 강좌는 한 번도 개설되지 않았다. 도서관이나 대학 주관 인문학과는 달리 이 아카데미는 수년간 지속해온 고정 강사진들이 존재하기에 주제의 종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는 부재하지만 다른 예술에서 춤을 다룬 경우나 특강 형식으로 편성된 단기 무용 강의는 소수가 있었다(표 6). 그 예로 음악평론가들이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극장 강의 속에서

클래식과 가장 친숙한 춤인 발레를 다루었다. 클래식 음악 강의가 10회 혹은 15회의 정규 강의였다면, 2020년에는 4회로 이루어진 단기 특강으로 영화평론가의 ‘영화 속의 춤’과 무용평론가의 ‘한국의 무용’ 강의를 있었다. 영화평론가는 인기 춤 영화, 〈빌리 엘리어트〉, 〈어둠 속의 댄서〉, 〈서스페리아〉, 〈셀 위 댄스〉 속의 춤을 각각 자유, 빛, 황홀, 탈·일상성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무용평론가는 한국춤과 춤담론의 변천, 그리고 현주소와 미래까지 시대 흐름 속에서 한국춤의 변천사를 감지해 보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비록 특강의 형식이었지만 이 강의는 무용을 단독 주제로 하여 여러 회차가 이어진 유일한 강의로 보인다.

〈표 6〉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춤 인문학 강좌의 예

일시	강좌	내용
2017년 3분기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천상의 몸짓 발레 이야기
2020년 3분기	이용숙의 오페라하우스 인문학	고전발레와 드라마 발레
2020년 3분기(특강)	전통에서 컨템포러리까지 한국무용의 흐름과 비평	한국무용과 컨템포러리 댄스까지 ‘한국의 무용’이 거쳐 온 길
2020년 3분기(특강)	영화 속의 춤들	영화 속 춤을 네 가지 주제(자유, 빛, 황홀, 탈·일상성)로 풀어 보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인문학 강좌에서 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인 대신 실기 강좌에선 발레, 라 인댄스, 현대무용 등 여러 형식과 레벨로 나누어진 무용 강좌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실기 강좌의 카테고리를 공연 예술의 ‘무용’과 ‘악기’만으로 한정함으로써 무용 실기 강좌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문화예술아카데미의 구조에서 볼 때 무용은 인문/실기의 이분법 속에 실기 영역에 집중되어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부산문화회관은 교육공간을 대폭 늘리면서 새로운 시민 친화적 강좌들을 추가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영화로 떠나는 인문학’이란 점에서 다시 한번 춤과 지역민의 ‘인문학적’ 거리를 실감하게 한다.

실기 강좌로서 두드러지는 춤 활용은 영화의 전당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영상복합문화공간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 설립된 영화의 전당은 다양한 영화, 공연, 전시, 아카데미를 제공하고 있다. 극장의 정체성을 살려 영화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 인문학’, ‘영화 사회학’ 등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현장 강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영화의 전당은 영화 학술 프로그램과 함께 ‘예술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무용 실기 강좌들을 대거 개설한 부분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한국무용 작품반, 시니어 발레 교실, K-Pop 댄스, 뮤지컬&팝재즈 댄스, 퇴근길 살사 댄스 등으로 구성된 실기 강좌의 다양성과 구체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극장 운영을 위해 ‘실기’로서의 춤이 폭넓게 소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영화의 전당이 영화 특화 공간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면 국립부산국악원은 전통춤과 국악의 보존 및 확산에 주력하는 기관이다. 2008년 개관 이래 시민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은 2023년에는 처음으로 공연과 연계한 인문학 강연 〈이야기마당 덩덩덤〉시리즈를 선보였다. ‘국립부산국악원포 인문학 콘서트’를 표방한 이 행사는 전통춤을 포함하여 국악, 소리극, 연희

극을 주제로 국악원이 개최하는 공연과 연계해 기획되었다.

그중 춤 인문학은 ‘가무악극 <춤바람 분데이>’를 통해 보는 부산의 문화유산과 신명의 가치’를 주제로 해당 공연 연출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였다. <춤바람 분데이>는 부산 지역 전통춤인 동래학춤을 소재로 한 가무극으로, 연출자는 강의를 통해 해방 전후 부산의 풍경, 그리고 공연 제작과정 등을 공유하며 호응을 얻었다(이상철, 2023). 이 프로그램은 개관기념으로 제작된 작품의 공연 기간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산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과 춤 인문학 강연을 함께 기획함으로써 공연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춤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 수 있는 복합적인 시간을 선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인문학 강연이 풍부한 사유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실 공연에서의 작품 해설과 차별점을 지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마당 텨땨땨> 시리즈가 개최된 장소인 북카페는 국악원 부속 시설로 전통 관련 연구자료, 도서, 음원·영상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고 개방형 열람실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문학 콘서트’ 즉, 공연과 인문학이 연계된 강연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인 행사이고 앞으로의 기획과 장소의 활용 등이 어떤 방향성을 지니며 나아가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결과, 부산의 예술 인문학은 음악, 미술, 영화를 중심으로 각 공공기관에 골고루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황 분석만으로는 각 강좌의 수준과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소주제의 일회성 강의가 많다는 점에서 대중 인문학의 비판 지점인 “이벤트성, 수동성, 소비성 교양 강좌”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양은아, 2020, p. 57; 윤나영, 2014; 천정환, 2015). 그러나 도서관, 구청, 공연장, 학교 등 공공기관의 인문학 강좌 기획이 지역민의 선호와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음악, 미술, 영화는 친화적인 지역 인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양이나 특정 장소, 인물 등 부산의 지역성을 반영한 강의로도 기획의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대중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예술 인문학 콘텐츠는 주로 작품을 매개로 인간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강의실 밖 관련 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반해 춤은 인문학 대중화 정책과 기획에서 벗어나 대부분 실기나 공연, 혹은 사유와 거리가 있는 체험활동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소통하는 춤 인문학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문학 대중화 흐름 속에서 부산지역 인문학 강좌의 춤 활용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문학 대중화 정책의 시행은 2000년대 대학 인문학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서 나왔다 고 하지만 이는 곧 무용을 포함한 대학 예술교육이 위기에 직면하는 시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과 정부가 위기에 대응할 자구책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강연은 가까운 도서관, 구청, 공연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행사로 다가왔고, 그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인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인문정신문화 탐구를 지향하는 인문학 대중화 현상은 전국적이며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문학 강좌의 인기 주제인 예술에서 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실

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진단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서관, 대학, 지자체, 공연장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인문학 강좌 속 춤 인문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교육부의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지역 대중 인문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규모의 구립, 시립, 사설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그중 예술 강의는 미술, 음악, 영화에 편중되어 있다. 춤 강의를 매우 드문 가운데에서도, 특화기획으로 마을 공동체와 함께 춤 경험으로 삶을 성찰해보는 프로그램은 인문학적 실천이 두드러진 사례로 파악된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한 시민 인문학 강좌도 대중 인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연구 지원사업의 역점이 대학에 있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중화 사업을 확산시키는 주체 역시 대학이기 때문이나 그 과정에서 춤 연구와 활용은 미미하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나 주로 유명 예술인의 일회성 강의를 진로 탐색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국립립 공연장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 중심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부산문화회관의 문화예술아카데미의 경우 음악과 미술의 고정 강사진이 춤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춤은 강연보다 실기 영역에 치우쳐 있다. 다만 하나의 춤 공연을 중심으로 강의, 공연, 전시를 연계한 국립부산국악원의 행사는 강의와 체험을 지역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 여부를 주시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부산지역 예술 인문학 강좌에서 춤 인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으며, 타 예술이 생애주기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동안 춤은 여전히 실기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학 대중화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예술 인문학 강좌들이 풍부한 비언어적 매체를 이용하여 사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유사하고 평이한 형식이나 행사성 강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 정책 속 지역 춤 인문학의 부재는 이러한 환영과 비판의 대상조차 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가장 큰 이유는 무용학에 대한 기획 주체의 인식 부재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 무용학의 생태계 붕괴일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춤 연구의 중심점이 되었던 무용학과의 급속한 쇠퇴는 무용학 내에서 오랜 기간 화두가 되어왔던 '이론/실기의 이분법'을 떠나 이젠 더욱 시대에 역행하여 실기 교육 혹은 공연에 의존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또한, 역사, 비평, 문학, 철학, 사회 등 인문사회 분야 무용학 연구는 학계 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중과 현실의 언어로 환원하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 환경 또한 부족하였기에 민관학 네트워크로 외연을 넓혀가는 지역 인문학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춤 인문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문학 대중화가 예술을 활용하여 전방위로 나아갈 때 지역 무용계도 학계와 유관단체가 뜻을 모아 흩어져 있는 춤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 포럼, 학술대회, 공연 연계행사 등이 개별 단체의 정례적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과 대외홍보를 통해 무용인, 시민, 기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부산지역 무용학과는 국립대 한 곳을 제외하고는 통합과 편입의 과정을 수차례 거치며 와 해되어온 까닭에 전반적으로 무용학 연구의 동력을 잃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취향과 건강을 고려한 평생교육으로써 춤을 향유하는 경향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삶과 문화를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도 대학 무용교육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은 인간과 춤 문화를 읽고 쓰는 인문 학습과 더불어 융합과 대중화를 모색하는 오늘날의 인문학적 연구방법과 실용성을 탐구함으로써 분야를 넘어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학문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춤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강의 역량을 갖춘 중견 연구자들의 연대와 이들을 주체로 무용학을 활용한 다양한 춤 인문 콘텐츠 개발과 보급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힐링을 내세운 일회성, 소비성 강의가 아닌, 지역 문화 생태계를 직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춤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깊이 있는 연구는 촘촘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춤을 통한 인문 탐구는 연구실에서 나아가 공연과 시민을 이어 무용계와 지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은, 서예원(2011). 무용교육의 인문학적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1), 1-16.
- 박병준(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문학과 종교**, 22(3), 1-21.
- 박현정(2020). 무용현장에서 인문학 연구에 관한 소고. **무용과 이론**, 1, 45-63.
- 신동순(2015). 한국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 담론 일고. **제1회 한·중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1, 272-280.
- 양은아(2020). 인문학 소비시대 대중인문학 열풍과 과잉소비에 대한 비판적 탐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3(4), 55-91.
- 오재호 외(2016). 경기도 인문학 사업 발전 방안.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1-95.
- 유범상, 이현숙(2015).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인문학 논총**, 38, 165-194.
- 이병옥(2003). 무용인문학의 연구과제와 방향. **한국무용사학**, 1, 1-10.
- 전봉주(2011). [부산 소외층의 자활과 인문학의 실천] 자활의지 불어 넣는 '희망의 인문학' 강좌. **부산발전포럼**, 129, 26-33.
- 황수영(2010). 철학과 인문학, 개념적 상호작용의 역사. **인문논총**, 63, 179-215.
- 교육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6347696&tblKey=PMN>, 2023. 12. 15.>.
- 김형일(2023. 11. 28.). “동아대, ‘2023 열린 인문학 콘서트’ 성황리 개최”.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newsunicollvill/view.php?code=2023112815013685988>, 2024. 01. 05.>.
- 놀이마루 홈페이지. <<https://home.pen.go.kr/nrmr/cm/cntnts/cntntsView.do?mi=11394&cntntsId=1690>, 2024. 01. 25.>.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결과보고서(도서관편①). <https://www.libraryonroad.kr/ebook/2022_1.html?year=2022, 2023. 12. 30.>.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 <<https://www.libraryonroad.kr/newhome/>, 2023. 12. 30.>.
- 윤나영(2014. 06. 02.). ”어설픈 대중화 속 메마른 인문학“. **성대신문**. <<https://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2>, 2024. 01. 31.>.
- 이동국(2023. 11. 06.). “동아대, ‘열린 인문학 콘서트’ 오는 27일 개최”.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0611221721784>, 2024. 01. 05.>.
- 이상철(2023. 10. 24.).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체험관’ 개관”. **글로벌뉴스통신**.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35>, 2024. 01. 12.>.
- 천정환(2015. 12. 24.). “인문학은 말살, 인문학 강좌는 폭발...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23481.html>, 2024. 01. 31.>.
- 최현영(2023. 10. 26.). “동아대, 2023 「제13회 열린 인문학 콘서트」 개최”. **파이낸스 투데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83>, 2024. 01. 15.>.
- 하경민(2023. 08. 05.). “부산교육청,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자료집 제작·배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8050753333208>, 2024. 01. 07.>.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NEH) Homepage. <<https://www.neh.gov/information-first-time-applicants>, 2023. 12. 20.>.

논문투고일 2024. 02. 15.

심사일 2024. 02. 27.

심사완료일 2024. 03. 10.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ance-Humanities Courses in Busan

– Focusing on Humanities Courses in Public Institutions –

Roh, Youngjae

Lecturer in IRC,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ance within humanities courses in Busan, with a focus on the popularization of humanities. To this end, I first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dance in humanities courses organized b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performance venues. The results indicate that dance constitutes an extremely low proportion of humanities courses related to the arts, and that it predominantly remains within the realm of practice, unlike other arts which employ diverse contents to engage citizens across various stages of life.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dance community collaboratively endeavors to activate the ecosystem of dance studies and proactively develop and disseminate dance humanities content utilizing dance studies. Through this approach, the exploration of humanities through dance can emerge as a valuable endeavor connecting performers and citizens, thus revitalizing both the dance community and local culture.

Keywords: Humanities(인문학), Dance studies(무용학), Popularization of humanities(인문학 대중화), Humanities programs in Busan(부산 인문학 프로그램), Humanities on the road(길 위의 인문학)